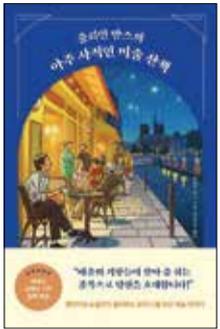


책읽는 상하이 243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

| 2023 7
: KEEPING AN EYE OPEN



상하이에 오게 되어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 박물관과 미술관은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미술이나 그림에 특별히 깊이 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림을 보면 형태와 색의 아름다움과 창조성, 독특함에 매혹되고 그림을 전시한 멋진 건물들에 감탄하고, 그렇게 보고 오면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책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은 제목에서 끝났다. 미술과 산책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 두 단어가 주는 끌림, 게다가 '줄리언 반스'가 쓴 책이라니... 화가들, 그림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그가 이야기를 풀어냈을 지 몹시 궁금했다. <표지 그림, 팡탱 라투르의 <식탁 모서리>중 랭보의 모습> 반스는 옥스퍼드에서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 획득, 저널리스트, 비평가, 편집자 등 여러 일을 거치며 다수의 소설과 수필을 썼고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이 책은 이런 경험과 경력을 가진 반스가 1989년부터 2013년에 걸쳐 여러 유명 잡지에 기고한 미술 에세이를 모아 엮은 책이다.

책에 소개된 화가는 제리코, 들라크루아, 쿠르베, 마네, 팡탱 라투르, 세잔, 드가, 르동, 보나르, 뷔야르, 발로통, 브라크, 마그리트, 올든버그, 론 뮤익과 폴 리세, 프로이트, 호지킨이다.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나비파, 큐비즘을 거쳐 현대 미술의 화가들까지 망라하고 있다.

각 챕터의 글들은 화가들마다, 화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식과 문체를 취한다. 재미있게 읽었던 편은 <제리코-재난을 미술로>이다. 1816년 메두사호가 침몰된 후 구조된 생존자들을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

반스는 제리코가 그 사건을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림으로 완성시켰는지를 작가적 상상력과 사실을 조합해 한편의 사건 리포트처럼 기술하고 있다. 한 장면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축소하며, 어떻게 인물을 배치할지 고민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뗏목을 직접 제작했다는 준비 과정과 생존자들의 뒷이야기까지 이어지니 무척 흥미로웠다.

마지막 소개 화가인 <호지킨(1943-2017)>편에서는 색에 대해 무척 까다로우, 반스의 눈엔 같은 검정으로 보였지만 호지킨의 눈엔 미묘하게 다른 검정으로 보인 일화를 소개하고, 동시대를 같이 살며 함께 했던 일들을 단상 형식으로 썼다. 플로베르의 말을 하도 많이 인용해서 플로베르의 책을 읽고 싶게 만들기도 한 챕터였다.

사실 관련 그림과 언급된 비평가, 인물들의 소개글을 찾아 읽어야 이해할 수 있어 피로도가 있었는데 반스식 유풀 있는 문장은 그 와중에 웃음을 터트리게 했다. "집에 걸려 있었던 전혀 에로틱하게 느껴지지 않는 여성누드 유화를 보며 "예술의 역할은 그런 것인가 싶었다. 그러니까 엄숙미로 삶의 흥분을 제거하는 것"이라든지, <팡탱 라투르의 뒤부르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미술과 결혼의 역사상 처가를 묘사한 것 중 가장 우울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 아닌가 싶다." 등.

미술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 나에겐 위로였고 삶의 활력이었다, 반스는 "미술은 단순히 흥분을, 삶의 전율을 포착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은 가끔 더 큰 기능을 한다 미술은 바로 그 <전율>이다."라고 했는데 깊이 공감한다. 반스의 미술 산책길은 밀도가 있어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가 펼쳐 놓은 다채로운 산책길을 친구들과 나누며 완주하여 뿌듯하다.

※ (shanghaiab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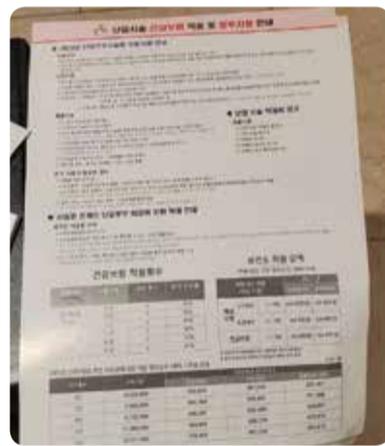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에서 임신 준비하기

상하이에 사는 여성들을 결혼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한한부부, 한중부부, 싱글' 이렇게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한한 부부는 나와 같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여성이고, 한중커플은 중국인과 결혼한 여성이고, 마지막은 말그대로 혼자라는 뜻의 싱글이다.

주로 한중 부부는 문화차이는 있지만 중국내 생활하는 공공금 납부, 병원, 보험 이런 사소하지만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한한부부들은 마치 혼자 태어나 자립하는 20살 청년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한한부부로서 오늘은 내가 겪은 상하이에서 임신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먼저, 임신을 할 수 있는 몸 상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정부 의료보험이 있다면 중국병원에서도 한국과 같이 동일하게 초음파, 피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중국 의료보험이 없고, 중국내 직장인들을 위한 사(私)보험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료를 받았다.



[사진=한국에 위치한 난임병원의 안내 자료]

배란일과 생리날짜와 맞춰서 가야 함으로, 난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번 정도는 한국에 방문해야 하니, 이부분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어로 설명이 듣는 것을 원한다면 사보험이 커버되는 국제 병원도 괜찮다! 다만 국제병원은 보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니 꼭 확인 해보시 길 바란다. 나의 사보험은 보험을 옵션에 임신에 관련된 추가 보험금을 내야 적용이 되어서 추가금을 냈다. 추가금을 내고 1년이내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결혼예정이나 임신준비라면 미리 추가 해놓기를 권해 드린다.

나는 처음에는 난임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서 많이 걱정했으나, 다행이 큰 문제가 없어 자연임신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럼 자연임신을 위해 타오바오나 약국에서 배란 테스트기와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를 매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혹시 우리에게 아기가 생기진 않을까 라는 기대감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다.



[사진=상하이의 한 국제병원의 난임 상담 내용]

인격적으로 좋은 부모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상하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키우는 두려움 같은 것 말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면 주변의 친구들의 아이처럼, 조카들이 자란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것이다. 나는 가끔 "상하이에서 아이 기른다는 것은 모든 환경이 달라 걱정이야"라고 남편에게 말하면, 그는 항상 말한다. "아이를 먼저 임신하고 그때 고민해 보렴"

이문제의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노래가사처럼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자.

※ (shanghaiabang.com)

Advertisement for Yonsei Math Summer Camp. Includes logo, QR code, dates (June 17 to August 16), and detail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th courses.

Advertisement for Kan Academy 2024 Summer Camp. Includes logo, dates (June 24 to August 10), list of courses (SAT, PSAT, SSAT, TOEFL, IELTS, MAP Test Prep), and contact information.